

發明獎勵事業의 當爲性 '85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開催에 부쳐

技術確立 없이는 企業의 存立은 물론 産業發展을 期約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常識的인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前提아래 80年代에는 政府에서도 技術優先政策을 採擇, 科學技術振興을 통한 持續的이고 安定的인 成長計劃을 追求하기에 이르렀다. 그 한가지 表現으로서 輸出主導政策 優先 때문에 뒷전에 밀려 있던 技術開發政策이 技術振興擴大會議라는 이름으로 第5共和國 出帆과 함께 종료되기 시작하여 科學技術處를 中心으로 國家的 次元에서의 關心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從來에는 口號에만 그쳤던 技術立國의 意志가 發明振興이라는 表現을 빌어 浮刻되면서 國民 모두의 關心의 標的이 되고 있으며 10餘年間 命脈마저 끊겼던 「發明의 날」이 온 國民의 興望에 따라 되살아나서 지난 82년부터 매년 5월 19日 紀念式을 盛大히 치루고 있다.

또 그 後續事業으로 이어진 것만도 優秀發明의 試作品製作支援, 外國出願費用補助, 發明獎勵館 無料展示, 全國優秀發明品展示 등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 發明獎勵를 위한 事業중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는 아마도 國庫補助로 이루어지는 最初의 事業으로 國民 모두가 同參할 수 있도록 一般觀覽은 물론 出品 展示까지 無料로 開放함으로써 展示會의 意義를 極大化시키고 있다.

이것은 1441年 世宗大王께서 測雨器를 發明하여 世界氣象學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무디어진 우리의 發明 슬기에 새 날을 세우고 새로운 기상을 불어 넣으므로써 發明韓國의 雄志를 오늘에 再現시켜 오랜 文化的 傳統과 함께 發明韓國으로서의 또 하나의 傳統을 세워 보려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한편 實利의 側面에서는 發明을 통하여 創造와 應用을 잘 調和시켜 生活의 快適함을 더하고 지난 70年代의 經濟跳躍期를 발판삼아 90年代에는 世界 속의 經濟富國으로 浮上시킬 수 있는 準備期로서의 80年代를 蹉跎없이 치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는 歷代 政府 가운데 第5共和國의 出帆信號에서 처음으로 「創造의 意志」라는 우리 發明人에게는 너무나 낯익은 낱말을 접하면서 그 創造의 意志란 곧 發明人의 幻覺이 아니었다는 것은 時間을 더 할수록 實感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제 그 열매가 하나 들씩 맺혀지고 있는 것이다.

全斗煥大統領각하께서는 지난 6월 20日 第20回 發明의 날 受賞者 및 發明有功者를 接見하시는 자리에서도 發明의 重要性을 強調하시고 發明振興事業의 活性化方案을 講究토록 指示를 내리신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일부터 10日동안 열리는 '85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는 지난 어느 展示會보다도 알차게 準備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展示會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安保的 및 經濟的 現實을 들여다 보거나, 거세게 變遷해가는 世界의 政治的 및 經濟的 現實을 내다볼 때 너무나 時機適切한 國民의 行事라 할 수 있다. 이런 觀點에서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의 當爲性을 다시 한번 強調하면서 온 國民이 여기에 參與해 줄 것을 懇曲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㉞)